

불심시심

(4)

허공의 팔곡질

普興極因築鼻孔 옛날에는 하늘과 땅을 뚫더니
(석여관인축비공)
今伴山僧解打空 지금은 종과 친구되어 허공을 치다
(금반산승해타공)
打去打來空自鳴 처가고 쳐올 때 질로 이는 허공의 팔곡질
(타거타래공자회)
一鳴一出滿堂風 '후유' 하는 소리 날 때마다 방에 가득한 바람.
(일허허출만당풍)

이 시는 조선 초기 함허당(涵虛堂·1376~1433)의 시이다. 부채를 두고 지은 시이다. 선이 무엇이나 했을 때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웠을 선 아님이 없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일상의 삶이 바로 선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러함에도 선이다 하면 삶의 오묘한 어떤 깊이를 암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일차적으로 받는다. 평범한 현실을 그 평범 이전의 것이거나 또는 평범 저 너머의 진리의 깨우침 또는 평범 저 너머의 진리의 깨우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참의 모습이 아닐까.

위의 시는 여름날의 부채에 대한 평범한 소재로 부채 부침의 평범한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허선사가 보는 부채나 부채질은 그 평범이 바로 우주질서의 한 부분인 것이다.

부채는 하늘의 뿔구멍에서 피어나는 공기일 수도 있다. 이것을 축적해 두었다가 지금은 하늘의 손에 들린 부채로 인한

해서 때리는 허공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산승의 손 끝에서 이쪽 저쪽으로 허공을 때리고 있다. 이때 허공은 이미 없는 때때로에서 탄식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부는 바람은 허공의 팔곡질이다. 이 팔곡질에 방만에는 바람이 가득차고 이 바람으로 해서 스님은 시원하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람이 움직여서 오가는 것인지 부채가 오가는 것인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움직이기야 부채가 움직였지만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있는 나로서는 바람이 오고 간다고 느끼는 것이요.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바람이 시원하다 하지 부채가 시원하다 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바람이 움직이는지 깃발이 움직이는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진실인가 보다.

이 중 찬 <동대교수>

“바람소리를 그렸습니다”

자유 찾아 가는 무상의 여행 화폭에

여섯번째 개인전 갖는 하수경 교수

불교적 관심을 꾸준히 화폭에 담고 있는 하수경교수(전주대)가 여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론'에서 열리는 하수경의 이번 개인전은 「바람소리」를 명제로 한 작품 20여점이 출품된다. 전시회를 앞두고 작품의 마무리 작업에 분주한 하수경 교수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 오랫동안 전시회를 갖게 되셨군요.

▲ 92년에 다섯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니 꼭 2년만이었군요. 당시에도 「바람소리」라는 「새」를 명제로 한 작품을 내었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도 같은 주제의식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 바람이나 새를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하다고야 말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일관된 주제 의식이 있지요. 89년의 인도여행 이후 저는 고정물에 대한 관심을 자유로운 것, 다시말하면 무상한 것으로 옮겨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소리」 「새」 「물고기」 등의 소재를 선택하게 됐어요.

— 그 소재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입니다.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이요. 바람소리란 있는 것이지만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으니 없는 것이기도 하겠습니까. 그 자유는 다시 무상이라는 인식의 세계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상에 대한 관심은 인도여행이 저에게 준 커다란 화두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 그림들이 좀 난해한데요.

▲ 그렇습니다. 화가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감상하는 분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면 저의 책임이겠지요. 그러나 명제와 주제 그리고 소재가 갖는 유기적인 관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리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 화가의 작품세계를 직접 감상객들에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도 좋을 듯 싶은데요.

▲ 그렇지 않아도 생각중입니다. 전시장에서 감상자들과 마주 앉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없는게 화단의 실정이고 보니 용기가 나지 않는게 제 실정입니다.

— 그림의 구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원래 동양화는 머리 속에서 그림의 전체적인 구상이 무르익은 후에 단번에 그려내야 하는데 바쁜 생활은 그것을 허락치 않는군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아무 종이 에다 에스키스(밑그림)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실에서 작품을 그립니다.

— 재료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

▲ 종이는 전주에서 나온 순지를 씁니다. 혹은 전주 별란의 북소가 밭에서 채취 해다가 씁니다.

—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여섯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 바쁜 하수경교수.

▲ 글씨요. 신묘불이라고나 할까요. 제 자신의 고향이고 추억이 서린 곳이 전주인데다 그곳의 종이와 흙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주에서 나온 종이와 흙으로 그림을 그리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 앞으로 무상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실 계획인지요.

▲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여행과 구산 큰스님의 대화에서 얻은 「화두」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깐요. 무상에 대한 인식의 편린들을 바람소리와 물고기, 새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자유를 찾아가는 저의 기나긴 여행이기도 합니다.

— 화가로서 또 불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 나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일연태 기자>

불교음악의 대향연 성황

13개 합창단 열창... 무대연출 새로워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반영규)가 마련한 '94 불교음악의 대향연'이 지난 5일 KBS홀에서 2천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예불합창으로 시작하는 이날 음악회는 불교계 작곡가 장부기씨 등 4인의 합창곡 20여 곡이 13개 합창단의 합창과 고소화, 오승희씨등의 독창에 의해 연주됐다. 또, 천안 동여자중학교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범

“불교 전문예술극장을 세웁시다” 극단 바람, 기금마련 행사·공연도

이형기교수 대산문화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

국내 문화상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이 수여되는 대산문화상의 시부문 수상자로 동국대 이형기교수가 선정됐다.

이형기교수는 대한민국의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부산시 문화상, 윤봉길문학상을 받았으며 <물베개의 시> <꿈꾸는 한발> 등 다수의 시집을 냈다. 이번 대산문화상에는 이창준, 최윤, 파르티모루스씨가 번역상을 김우창씨가 평론상을 받았다.

불교극단 바람(대표·현장)이 “불교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한다.

극단 바람은 불교연극의 정체 국역을 벗어나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불교 전문 예술극장」의 건립을 계획하고 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이 극장은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극공연과 영화, 무용, 음악, 예식 등 다양한 행사장으로 쓰이게 된다. 또 세미나, 법회



○지난 5일 KBS홀에서 열린 불교음악의 대향연. 사북처림의 합창단이 눈길을 끌었다.

한 상태이며 곧 스템을 구성 연습에 들어간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극장 건립 모연에는 공연문화의 침체를 안타까와 하는 불자와 스님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는 극단측은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다라세계 보여
도열스님 작품전

석도열 스님의 네번째 작품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경으로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작품전의 주제는 「우주를 만난 화월 만다라」이다. 도열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인도지역 성지순례에서 얻은 환희심을 화폭으로 옮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님의 작품은 만다라의 세계를 선명한 유채로 캔버스에 옮긴 것들로 인간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모례정 지방문화재
경북 제296호로 지정

경북 선산군 도개면 도개리에 위치한 모례정(毛禮井)이 지난날 10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96호로 지정됐다. 모례정은 신라 불지왕초예고구려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물레 숨어들어, 이곳 모례(모록)의 집에서 3년간 머슴살이를 하면서 포교활동을 했던 우물이다.

사찰음식 강좌 현대인의 건강식 소개

한국전통사찰 음식문화 연구소(연구소장·적문)는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발굴·계승하여 현대인에게 적합한 건강음식을 소개하는 강좌를 마련한다.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마련되는 이 강좌는 사찰음식 조리법 강습과 큰스님의 생활 및 건강법론이 있게 된다. 또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전국의 현지 사찰을 직접 탐방하여 사찰고유의 음식을 배우게 된다. <문의 : 245-0904, 246-6857>

심장병아 돌기 음악회 24일, 연예인 자비회

대한불교연예인자비회(회장·지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7시 30분 2회에 걸쳐 「심장병 어린이들기 자선음악회」를 부산 KBS홀에서 갖는다

이두스님 첫 구도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 앞에서』

번뇌와 해탈의 여정 한 수행승 통해 조명



이두스님 첫 구도소설 『명암이 없는 선하(禪可)앞에서』를 펴냈다.

한 승려의 일생을 다룬 이 소설은 주인공이 사회에 대한 갈등과 정경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후 출가해서 구도의 길을 걷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짧은 인생을 길게 사는 길은 개인에 집착하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사회의 복된 일을 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예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길”이란 스님의 생각이 그대로 주인공의 행적에 나타나고 있다. 구도 소설이 갖는 특징인 주인공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위도 이 소설에서는 절절히 묘사되고 있다. 특히 중간부분인 「대도만행」장면은 고뇌하는 수행자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나고 있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만행을 거두고 깨달음의 길로 큰 결실을 내린다. 그 큰 결실을 역시 달마의 그것에 비견만큼 철저한 면벽정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수행의 먼 길을 가늠케 한다.

조국 본단의 아픔과 수행자의 고독 그리고 구도 일념의 눈부른 정진은 결국 선하(禪河)의 깊은 강물 속으로 몰려면서 이 소설은 종지부를 찍는다.

끊임 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ENERGY 절 약 형 각종 공업로 설계 제작 시공 전문업체

세계의 기계공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 엔지니어링은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미국의 선두업체인 ATMOSPHERE FURNACE COMPANY와의 기술 제휴로 열기술 및 고성능의 공업 용로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새로운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을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보이겠습니다.

- 영업품목 · 산업용로 제작 (가열로, 소둔로, 비철금속용해로, 각종 분위기로, 전기로, 오업으로)
- 전기 제어 장치
 - CERAMIC FIBER
 - 각종 로 재료 판매 및 시공
 - ADI 열처리

전력을 다하는 기업

K&E 금강엔지니어링
KUEM KANG ENGINEERING

부산시 금정구 부곡 2동 273-2
TEL.: (051) 512-7242~3
(051) 517-3488~9
FAX.: (051) 514-3593

USA ATMOSPHERE GROUP INC. 기술제휴